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6월 14일(금)
..(음력 5월 12일)..

Пятница

14 июня 2019г.

№ 23(11684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2일은 '서시아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 내무국 국장으로 아르센 이사굴로브 임명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사할린주 내무관리국 국장으로 아르센 이사굴로브가 6월 6일부로 임명되었다.

경찰 대령인 아르센 이사굴로브는 1968년에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서 태어나 1996년부터 내무부 부처에서 근무해왔고 2012년 2월부터 하바롭스크시 내무관리국 국장, 2014년 6월부터는 하바롭스크변경 내무관리국 부국장(경찰청 청장)을 역임했다.

3세의 소아암 환자 예와 와로산 완치

예와 와로산(현 3세)이 2년 전 신경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한국 병원에서 힘겨운 치료과정을 끝내고 지난 6월 9일 거의 완쾌되어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예와는 한국 병원에서 한국,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최신의료기술을 사용해 화학요법 과정, 공수이식(두번), 양성자치료, 면역요법 과정(5번) 등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예와의 전 단계적 치료과정을 관찰, 연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제 비타민 치료과정이 남은 상태이고 이후 예와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 사할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예와의 치료에는 4400만루블리(예상 금액)가 들었는데 그중 2500만 루블리는 모금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와로산의 가족과 친척들이 지원했고 가족은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과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 금액을 충당했다고 한다. 현재 예와는 걷고, 놀며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예와의 아빠는 기부금을 전달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2년 전 새고려신문도 예와의 소아암 치료를 위한 모금에 동참코자 광고를 게재했었다.

경기 민예총, 사할린에서 문화행사 펼칠 예정

경기 민예총 대표단(27명)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사할린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약칭 민예총)은 진보적 예술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경기 민예총은 6월 20일(목) 오후 4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공원에서 <아득한 그리움은 꽃으로 피어나고>란 문화행사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부가 협력한다. 주최 측은 사할린 동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의 날 기념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요 행사들이 <러시아는 나의 역사다> 역사공원 앞마당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러시아 국가 연주와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되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 정부가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과 특히 사할린 지역 발전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집과 가정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사할린 지역을 개선하도록 변화시켜갈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목표지향성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도적인 활동 덕에 사할린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개발> 주도적 예산 기획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10개 지방자치체들이 제안한 기획들이 채택되었다고 전해졌다.

<지역개발> 기획 우승자 시상식 외에도 여러 공연과 활동교실이 진행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온 <시나야 프찌차(파랑새)>양상들의 공연과 사할린 연주자와 무용단들이 펼친 무대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절 기분을 한껏 안겨주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주 미술박물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

지난 7일(금)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먼저 <새고려신문 70주년/우리들에 대하여>란 전시회 개막식이 있었다. 행사장은 애독자, 후원자, 외교관, 사회단체 관계자, 문학·예술인,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 분위기로 흥성거렸다. 복도에 꾸며진 전시에 관객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세르게이 부드킨 부지사는 사할린주지사의 명의로 신문사 사원 일동에게 축하했다. 그는 신문사 사원들의 높은 전문성과 헌신에

감사하다고 하며 창의적인 성공을 기원했다.

"당신들의 언론매체는 사할린주와 거의 나이가 비슷하다. 우리 지역과 함께 신문은 먼 길을 걸어왔고 독자들의 사랑과 충성심, 전문 사회의 존경을 얻고 있다."고 부드킨 부지사가 언급했다.

"이 신문은 사할린 한인들에게 중요한 보도수단으로 남아있고 민족 언어, 문화와 전통 유지보급에, 그리고 사할린과 한국 간 협력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섬지역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역사적 조국과의 연관성을 느끼게 하고 사할린 지역의 주요 사건들을 알리고 있다."고 부지사가 덧붙였다.

부드킨 부지사는 신문사에 지사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과기동 소장은 "새고려신문사 임원진과 직원분들의 사할린에서 한민족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동포애를 고취하겠다는 남다른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당당히 한민족 동포 언론사로서 존재의 의의를 밝힐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사할린주기자협회 류보위 카시안 회장은 새고려신문의 독특함을 말하면서 민족신문은 극동지역에서 거의 없다고 했다. 카시안 회장은 한민족지의 큰 공로를 인정하여 기자협회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19년 하반기 신문주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7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시상식 예년에 비해 글짓기의 수준 향상

지난 7일(금) 17시 30분에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에서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식과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는 글짓기 참가자들과 내빈들이 함께해 축하했다.

시상식은 <에트노스>학교 가야금 3중주가 한 쇼스타코비치의 '마음'이란 곡 연주로 시작되었다. 내빈들을 환영한 새고려신문 배 워토리아 사장은 이번에 한글 글짓기는 신문사에서 여러 번 실시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어 글짓기 콩쿠르도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문예콩쿠르에는 50여 명이 참가하여 55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콩쿠르에는 사할린 주민들(우글레고르스크, 사흐초르스크, 홀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는 물론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한국(안산, 부산, 김포)에 거주하는 분들도 참가했다. 참가자 중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연금자, 학교 학생, 변호사, 건축가, 교사, 회사원, 대학생 —이 참가했다. 최고령 참가자의 나이는 88세였고 최소연 참가자 나이는 12세였다.

한민족지 70주년 기념 한글 글짓기 심사위원회는 안춘대 전 새고려신문 사장, 장기간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약한 박혜신 선생(현 새고려신문사 교정원)과 배 워토리아 사장으로 구성되었다. 러시아어 글짓기 경연대회 작품은 러시아작가 동맹원 허남영(허 로만) 시인, 러시아 작가 동맹원 양 세르게이 작가와 장태호 작사가 - 사할린 문학계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심사했다고 새고려신문 사장이 밝히며 모든 심사위원들을 소개했



다. 시상식은 특별상부터 시작되었다. 특별상은 최고령 참가자 전채린 어르신과 최소연 참가자 동양김나지아의 크냐제바 안나에게 주어졌다. 특별상 시상과 상품은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의 광기동 소장이 직접 수여했다. 안나는 러시아어로 자기 가족의 한인 뿌리에 대한 글을, 전채린 할머니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어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시작해 지금까지의 삶을 잔잔하게 한글로 표현했다. 답사를 한 전채린 할머니는 간단히 새고려신문사의 70주년을 축하하며 애독자로서 신문사의 건강과 신문사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러시아어로 쓴 글짓기에 대한 심사평은 양 세르게이 작가가 전했다. 그는 러시아어로 된 글이 22개가 접수되었다며 글쓰기의 첫 걸음을 디딘 사람들의 글도 있었고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작자들의 진심이 담긴 재미있는 이번이 올랐다고 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 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러시아어 글짓기 부문

1등 - <할머니>에세이(김

알리사, 31세, 유즈노사할린스크, 회사원)

2등 - <할머니택에 가는 길>에세이 (최 워토리아, 52세, 유즈노사할린스크, 세관 통과 전문가)

3등 - <사샤, 한국여행> (박 알렉산드르, 30세, 모스크바, 석유가스회사 팀장)

장려상(시작) - <3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피해자' 또는 '운이 좋은 사람'> (우 솔리, 부산 러시아 콜레즈 학생, 14세)

장려상(상승) - <추억> (남 정옥, 72세, 블라디보스토크, 연금자).

장려상과 2등, 3등 시상식은 허 로만 시인과 양 세르게이 작가가 했으며 최우수상(사할린 - 서울 - 사할린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 흥정환 사할린지점장이 직접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 알리사는 이날 할머니에 대한 자신의 작품을 낭독해 행사 참석자들도 공감한 가운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국어 글짓기 부문 심사평은 박혜신 선생이 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70주년 기념을 맞아 <한민족의 금지와 동포애를 고

취시키고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일깨우는 글>을 글짓기 공모 주제로 한글과 러시아어로 응모된 작품들은 적지 않았다. 안춘대 선생님은 예년에 비해 글의 수준이나 주제, 한글 맞춤법의 수준도 나아졌다고 했다. 작품의 양도 적지 않았다. 작품 내용들은 주로 한인 2세들이 부모님을 주제로 하여 쓴 글, 1세 어르신께서 어릴 적 추억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를 차분하게 서술한 글, 고향에 대한 추억, 1세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의 문제, 대학생의 한국에서의 대학생생활이었고, 청소년들의 재미있는 글감 내용들은 딸을 쓴 인간의 양면성, 인간과 동물과의 유대관계, 한국의 음식문화와 한국인의 독특한 관심, 한국에서의 재미있었던 여행과 놀이, 증조모와의 추억 쌓기 등이 있었다.

각 주제에 따른 소재도 다양했다.

소재로는 한국의 노래, 어머니의 떡, 고향의 어릴 적 물놀이, 아버지의 그림, 홀로 가는 영주 귀국,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학 생활 등등, 일관된 주제 속 소재는 재미있었다.

(7면에 계속)

서울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7박 8일 정으로 서울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의 황형선 프로듀서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는 새고려신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취재하여 라디오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 프로그램 제목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내 귓속엔 우리말이 흐르고 있다>' 40분씩 2부작으로 7월 28일과 29일에 방송할 예정이다.

황형선PD는 체류기간 동안 새고려신문사를 방문하여 배 워토리아 사장을 비롯한 신문사 관계자들을 만나 새고려신문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증언과 개인들의 기억을 취재했다.

또한 한국어와 한민족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사할린 한국교육원, 사할린국립대, <에트노스>예술학교 등을 취재하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물론 한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황 프로듀서는 "한인 2세부터, 3세, 4세가 어울려 사는 한인 가정을 방문하여 우리말과 한국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들어보고 사할린에서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들을 취재했다."고 말했다.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예술단들, 극동지역 단체 아마추어예술단 축제대회에서 수상

6월 6일부터 9일까지 하바롭스크에서 전국 아마추어예술단 축제대회 <전통>부문이 진행된 가운데 개막식이 하바롭스크극장에서 열렸다고 사할린주민속창작센터가 전했다.

축제의 목적은 러시아연방 민족들의 민족무형문화유산 유지 및 보전, 예술단 및 재능 청소년 지원,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러시아 민족 간 우호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있다.

지역 단계에는 하바롭스크·프리모리예·자바이칼리예·캄차트카 변경, 부랴티아 공화국과 사하(야쿠치아) 공화국, 마가단·사할린·아무르주와 유테인자치주에서 31개의 예술단이 참가했다.

사할린주를 대표해 <멘구메 일가(은빛 문양)>민속단(포로나이스크)과 <돌리누쉬카>민속단(돌린스크)이 참가했다.

대회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교실과 장식공예예술 장인들의 전시회가 열렸으며 지방의 단일문화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하기 위한 <윌탁 모임>에서 극동지역 민족들의 문화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대회 폐막식과 축제 참가자 갈라공연은 6월 9일 진행되었다. 콩쿠르 결과 <멘구메 일가>민속단은 <민속무용>부문에서 3등을 차지했고, <돌리누쉬카>민속단은 <민요>부문에서 1등을 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ансамбли стали дипломантами з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любитель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 6 по 9 июня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шел II зональный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любитель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 номинации "Традиции".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7 июня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вом театре драмы, сообщает ОЦНТ.

Цель фестиваля —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Ф, поддержка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воспитание патриотизма,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и и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оссии.

В зональном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31 коллектив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Республик Бурятия и (Саха) Якутия, Магаданс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ей,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и народные ансамбли "Мэнгумэ илга" ("Серебряные узоры") (Поронайск) и "Долинушка" (Долинск).

В программ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выставка работ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чтобы оценить и спланировать работ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сохранение еди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раны.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и гала-концерт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ись 9 июня.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ного прослушивания жюри фестиваля "Мэнгумэ илга" удостоена диплома II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ый танец", "Долинушка" — диплома 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ая песня"

<아날록 사진>무료 연수 다시 모집 공고

<리스트>사진작업실이 <아날록 사진>연수 참가자 모집을 다시 한다. 모든 희망자들을 위한 첫 강의는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진행한다.

이 연수 과정은 필름 사진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필름 카메라로 촬영법, 필름을 현상하는 법, 암실에서 필름을 인체하는 법, 사진을 장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연수는 이론부와 실습부로 구성되었다.

연수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수업 시 주최 측은 필름 카메라, 장비와 모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연수과정은 장려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된다. 협찬으로 나선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은 이론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강의실을 제공한다.

첫 강의는 6월 17일과 18일 18시 사할린주 도서관(주소: 하바롭스카야, 78번지)에서 진행된다. 모든 문의 전화 8-914-757-79-94 (알렉산드르).

Объявлен повторный набор на бесплатный курс "Аналоговая фотография"

Фотомастерская "Лист" объявляет повторный набор на фотокурс "Аналоговая фотография". Первые лекци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ойду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Курс предполагает знакомство с пленочной фотографией.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научиться снимать на пленочные камеры, проявлять фотопленки, печатать снимки оптическим способом в темной комнате, а также оформлять готовые отпечатки. В обучение входит теоретическая и практическая части.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최우수상 수상자 안복자 저자 소개

1957년 러시아 사할린 포베지노 출생.
1974년 학교 졸업 후 하바롭스크 이주 전문학교에 입학.
지역 인쇄소에서 근무하면서 신문 <극동지역의 청년>, <태평양의별> 발간에 참가.



하바롭스크사범대학에서 교육방법 전공.
현재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 건강상 3급 장애 판정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남편의 지원을 받으며 강의를 비롯해 활쏘기, 다트, 체스, 수공예, 회화, 한국 요리교실에 적극 참가하여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수상소감

극동지역에 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새고려신문사의 사장님과 전 직원에게 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신문사의 문예 콩쿠르 덕분에 오래전 어린 시절의 일들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예 콩쿠르에 참가해서 예상치 않게도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사할린의 한인들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젠가 저의 부모님도 구독하셨을 신문에 제 글이 오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기획으로 신문의 애독자가 많아지고 창작의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하바롭스크에서 안복자

심사평

<한국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한글 부문 최우수작

안복자 씨의 글은 자신의 삶에 투영된 아버지의 모습과 성격, 아버지의 삶,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을 서정적으로 표현해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풀어낸 소재는 한국의 노래였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무리가 없었고, 맞춤법에서도 거의 오류가 없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절과 절이 이어지는 복합문이 많아 문장이 길어진 점, 단문으로 풀어냈더라면 쉽게 읽어낼 수 있었을 거라 본다. 그중 하나의 인상적인 영화장면 같은 표현이 읽는 이에게도 깊이 다가왔다.

'어떤 때는 전기가 없어도 어른들이 약한 촛불이 빛나는 방에서 겨울의 길고 추운 밤까지 부르던 노래가 많았다. 바람에 그 가벼이 떨어지는 촛불이 바람을 많이 맞고, 햇볕에 그을리고, 영감을 받아 노래하는 그들의 얼굴들을 비추면서 석회로 바른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떨어졌다.'

문예콩쿨 최우수상

한국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안복자

모든 민족에게는 수천년에 걸쳐 전해오는 자체의 전통, 문화 유산, 노래가 있다. 노래는 좋은 기분, 사랑,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생겨난다. 사람의 인생에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기쁜 사건, 행복을 주는 사건, 엄숙한 사건...

그러나 슬프고 심지어 극단적인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흘리지 못 한 눈물, 슬픔의 감정, 절망을 남긴다. 여기에서 오는 감정들은 우리가 삶을 아주 길고 긴 것으로 느끼게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지나간 과거의 머나먼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며, 우리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고, 그 순간,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행복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나에게는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두 개의 고국이 있다. 나는 한국을 방문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 한국에 갈 때면 한국의 놀라운 문화와 고대 전통의 모든 풍요로움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자원, 문화의 혼합,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서로 많은 민족 간의 상호 존중을 보며, 그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부모님이 힘들었던 시절인 1957년 소련의 사할린 지역에 있는 포베지노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제 2 차 세계 대전 말 사할린섬에서 소련군이 일본군과 항전하여 최종 승리를 거둔 곳이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복자(福子)'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은 행복을 의미한다. 그 당시 부모님은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힘든 뜻을 짊어지며 사셨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후 부모님은 자신의 고향, 유년기를 보냈던 곳, 부모와 동생들이 살던 고국으로 되돌아가실 수가 없었다. 그 시기는 국제적 정치 상황이 그랬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서 머물러 사시게 되었다. 친척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지원 수단도 없이, 그 당시의 많은 동포들처럼 그렇게 삶을 사셔야 했다. 가정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내시며 사셨다. 무슨 도움으로 나의 부모님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셨는지? 부모님에게는 본토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 땅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당시 이를 수 없었던 고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희망과 모국어, 아버지와 같은 처지의 불행한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 이러한 노래들은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과 희망을 주었다.

동포들은 이전에 자기 부모와 함께 고향에서 보냈던 명절들을 사할린에서도 지내며 자신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만들었다. 물론, 모국어로 노래도 불렀다... 나는 지금까지도 많은 노래가 기억난다. 그것은 모든 고려인들이 아는 "아리랑", "두만강 푸른 물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라는 노래다.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 명절에는 부모님과 이웃들이 전통적으로 꼭 흰 밥에 김치, 미역국, 룩, 두부로 차려진 밥상 주위에 모여 앉아 계시는 것이 지금까지 기억난다. 고사리, 녹두, 콩나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선과 고기로 만든 요리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보통 날에는 없던 과일과 과자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명절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어른들은 다과 후 막걸리나 러시아 보드카 몇 잔을 나누며 농사일, 고향과 친척들에 대한 추억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들과 함께한 동포 손님들과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 속에 그림처럼 남아있다.

마루에서 낮은 밥상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때리며 모든 일을 하는 거칠어진 손과 젓가락으로 상에다가 가볍게 두드리는 동포들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연어/정호승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그 얼마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없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깊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말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오늘 내가 꿈은 내가 꿈의 그림자일 뿐
너를 사랑하고 죽으러 가는 한낱
숨은 별들이 고개를 내밀고 종종히 우리를 내려다 본다
이제 곧 마른 강바닥에 나의 은빛 시체가 떠오르리라
배고픈 별빛들이 오랜만에 나를 포식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밤을 밝히리라

"연어는 백주입니다. 아침부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고개를 가우똥 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백주입니다'. 물론 연어가 백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백주를 곁들일 때 연어만큼 잘 어울리는 안주는 세상 천지 없을 거라는 제 철학인 거죠.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철학'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나요, 아무튼. 살아있는 그대로 회를 쳐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얼워서 ('얼려서'의 제 싸부님 표현법) 사나흘 썩 뒤에 각각씩씩 썰어 와사비 간장을 찍으면 게임 끝입니다.



여기에 백주 한 잔이 빠지면 안되는 거잖아요. 물론 한 잔은 너무 적고 서너잔, 아니다, 그런 숫자같은 건 생각 말고 마실래요, 저는. 버터를 잔뜩 바른 뒤에 짭짤 채 노릇노릇 구운 스테이크도 맛있지만, 소금에 절인 반건조 연어도 맛있습니. 후춧가루를 잔뜩 풀어 연어 대가리로 국을 끓여도 일품입니다. 무엇보다 바냐에 다녀온 후 백주를 곁들이는 연어라면 정말이지 기분이 끝내주겠네요. 상상만으로도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갑니다. 연어알에 밥을 비벼먹었던 생각을 하자니, 지금 당장 낚시 장비를 챙겨 오호츠크행 항공권을 구매해야하는 건 아닌가 고민입니다. 연어철이 도래했습니다. 서울의 한강에도 연어 떼들이 바글바글 거슬러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어들 속이야 썩어 문드러질만큼 괴롭겠지만, 새끼 낳고 그 새끼 힘차게 한 번 살아보라며 깨끗한 물줄기를 따라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 광경을 목도한 뒤, 저는 제가 연어 요리를 좀 멀리하게 될 줄 알았는데요. 그 뒤부터 오히려 연어 맛이 더 좋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낚시왕 이춘봉 선생님께서 사할린을 떠나십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만, 어디에 계시든 제가 최신식 낚시장비를 들고 싸부님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인사드릴게요, 약속.

서울에서 허진원.
2019.06.12.

안산시 새마을회, 사할린에서 나무 심기를 비롯해 봉사활동 펼쳐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안산시 새마을회 봉사단(25명, 단장 정차동 안산시 새마을회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안산시 새마을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지구촌공동체운동 해외봉사활동'을 펼치는 데 있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협력하여 지난 9일(일) 안산 봉사단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인문화센터 옆마당에서 나무 50그루 심기 활동에 나섰다. 한국 봉사단과 함께 이 행사에 사할린주 한인여성회 회원들과 주한인협회 청년부 젊은이들이 참가했다.

정차동 회장에 따르면 2년 전에 안산시 대표단과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다녀갔는데 그때 사할린한인협회에서 한인문화센터 앞에 소공원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나무 심기를 했다고 한다. 나무 심기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안산시 새마을회가 표명했다. 사할린을 방문 시 안산 대표단은 1세 어르신들과 여성회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웃음치료 시간, 제기차기를 비롯해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와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모국의 향수를 달랬다.

또한 본지 창간 70주년 창간에 관심을 갖고 한국 봉사단이 주미술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를 관람하고 지난 10일(월) 새마을회 관계자들이 새고려신문사를 찾아 사할린의 한민족지 연혁과 사업을 알아보고 새마을회 사업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사할린과 안산시 간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배순신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овесница моя, Газета!
С тобой прошёл я Жизнь свою...
Ты даришь людям много Света
Тебе Спасибо, что пою...*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с русским связан,
Как лунный свет с закатом Солнца...
Газете я по гроб обязан,
Ты яркий луч в моем оконце...*

*Шагать тебе в людские Души
Под ярким Солнцем, светлых Лун...
На сахалинской части суши
Родная «Се Коре Синмун»!*

07.06.2019г., Чжечжудо, Тэхо ЧАН.

Победител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правятся в Корею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объявленного газетой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создания газеты.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55 работ. Некоторые авторы прислали работ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Откровенно говоря, мы не ожидали столь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читателей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рислали автор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абаровске, Пусане и в Москве. Темы дл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заданны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курса, оказались актуальными и нашли должный отклик как у школьников, самому юному из которых исполнилось 12 лет, так и у людей зрелого возраста, самому старшему автору исполнилось 72 года. Почти все работы, разные по степени изложения — от «первой пробы пера» до произведений с интересным авторским взглядом и собственным стилем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о-настоящему искренние, эмоциональные и интересные.

Жюри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н Чун Де, Бя В.И., Пак Хе Син.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 двух группах: школьники и взрослые.

Абсолютного победителя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выявлено не было. Второе место присуждено Ким Хен А (14 лет, ученица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й достался приз от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 путевка в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Сеул) на 2 недели. 3-е место было присуждено 6-класснику из Хабаровска Пак Артему.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был присужден Кирликиной Елизавете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Среди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участников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 место — эссе «Я хочу, чтобы песни звучали» (автор Ан Бок Тя, пенсионер из Хабаровска)

2 место — эссе «В душе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У истоков родника)» (автор Ни Жан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з Хабаровска)

2 место — эссе «Студенческая жизнь в Корею» (автор Кузнецова Мария, студент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нститу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3 место — «Где моя Родина» (Лим Бок Хи, пенсионер, Южно-Сахалинск), «Жизнь матери» (Пак Ден Сун, врач-лаборан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ен Ден Э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нсан, пенсионер)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 «Пер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орею» (Козлова Елизавета, студентка ТОГУ, Хабаровск).

Жюри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 поэт Роман Хе,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 писатель Сергей Ян, известный поэт-песенник Тэхо Чан.

Жюри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присудить места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 место — «Хальмони» (Алиса Ки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2 место —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Виктория Ц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3 место — «Саша.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орею» (Александр Пак, Москв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Начало» стал автор эссе «Девочка с тремя именами — жертва или баловень судьбы» У Солли (15 лет), учащаяся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из города Пу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Восхождение» признан автор эссе «Встреча» Нам Анатолий (72 г.), проживающий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бедителям Ан Бок Тя и Алисе Ким были подарены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бесплатные авиабилеты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обратно.

Работы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метила юбилей

70-летие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редакция отметила выставкой, которая будет открыта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до конца июня, и конкурсом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Нынешнее время явно не "золотой век" для печатных СМИ. Не то что создать новое, но удержать на плаву уже существующее издание с большими традициями, сохранить привязанность аудитории — практически ежедневный подвиг. 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 свои 70 лет продолжает еженедельно выходить на связь с читателям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но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 восьми страницах журналисты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диаспоры, о Корею и корейцах, с 1995 года в газете введен раздел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 Будучи почти ровесницей области, ваша газета прошла большой путь и заслужила за это время любовь и преданность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и уваж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 сказал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ии главному редактору Виктории Бя и коллективу редакции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дкин. — Вы вносите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дело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чувствовать связь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и быть в курсе всех значимых событ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Фотораздел выставки неудержимо влек гостей, которые с радостью находили своих знакомцев-земляков на безымянных снимках — только еще молодых, красивых и буйно кудрявых. Ли Е Сик, Юрий Полухин, Ким Хва Чан создали коллективный портрет сахалинцев, каждый щелчок их затвора документировал жизнь для истории. И это не просто репортеры, но и художники. Ким Хва Чан ушел из жизни в 30 с небольшим лет, и о его таланте остались лишь теп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коллег да пара фото. С одинаковым успехом и удовольствием он снимал красоток, стариков и детей, грузчиков в порту и шахтеров. Денди с белозубой улыбкой и трудолюбив, он умел так снимать, что модель его не замечала, а между тем снимок потрясал естественностью и дыханием жизни. Но для каждого кадра он рисовал часами эскизы, искал ракурс, свет...

Монохромная фотоистория пленочного периода с грубоватой ретушью, которая не пощадила самого маршала Жукова, полна невероятного обаяния, так что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сегодня переживает второе рождение.

Вот этот самый путь журналистики в доинтернетную эпоху, "с лейкой и блокнотом" очень убедительно раскрыт на юбилейной выставк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 70: О нас" из архивов редакции. Одна из



старейших газет области, она два раза меняла место издания: сначала Хабаровск, пот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ри раза — название: "Чосон нодондя"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Ленины гилло"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с 1991-го —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 можно только удивляться, как много всего куратору Ольге Хай удалось вместить на "пяточке" малого зала музея из накопившегося массива документов и фотографий, чтобы через историю газеты показать историю области 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хранить персональный, личностный ракурс.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была создана "доска почета" в честь всех ее редакторов, начиная с 1949-го, которые вырастал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 народа, а не из факультета журналистики, а потому жизнь знали не понаслышке. Поэтому отдали дань уважения фотографам,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лицо газеты. Сохранили машинописный список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внештатник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остые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строители, портнихи, слесари, инженеры...

И они же становились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героями газетных публикаций.

— Газете в этом году не 70, а 140 лет, — счит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Любовь Касьян.

Такая особая арифметика, по ее мысли, обусловлена и юбилеем главного "фотоглаза" газеты последние тридцать лет — Ли Е Сика. Самые горькие моменты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драм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 нашли отражение в книге "Возвращение", созданной на основе его фотоматериалов. А на нынешней выставке немало моментов забавных, интересных и просто уже исчезнувших из жизни. Например, фото веселой первомайской демонстрации в Вахрушеве в 1960-х, которую снимал еще школьник Ли Е Сик, упросивший родителей купить ему фотоаппарат. Или юные исполнительницы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на сцене, в углу которой громоздился гипсовый бюст Ленина, или уже несуществующее здание с отчаянным признанием во всю стену от безвестного Ромео — "Оленька, я тебя люблю!".

Если выставку к предыдущему юбилею газеты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назвали "Песни печали и радости", куда вошли работы фотографа Ли Е Сика и его коллеги Мичио Катаямы, то нынешняя выдержана в более мажорной тональности. Не слезы, н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жизнь и любовь.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497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компании РК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межкоре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компании выражают высок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межкоре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9 июня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реди 535 компаний. Вышеуказанный ответ д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56,6% компаний. 67,6% из них отметили готовность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евером. При этом наи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выражен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городам Кэсону - 42,6%, Пхеньяну - 31%, Синьичжу - 9,9%. Среди причин такого высокого интереса к Северу отмечается стремление к открытию новых рынков,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связанных с повышением расходов на рабочую силу. Между тем, среди условий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ыделены такие меры как создание правил, гарантирующих компенсацию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ущерба, обеспечение условий выполнения Севером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связи и тамож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создание фонд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компании.

В РК завершена прокладка подводного тоннеля

В РК завершена работа по прокладке подводного тоннеля,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ет город Порён и уезд Тхэ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0 июн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аботы были начаты семь лет назад. Объект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протяженным в РК и пятым в мире. Его длина составляет 6,9 км, что на 1,5 км длиннее, чем Инчхонский тоннель. Проект нацелен на прокладку дороги длиной 14,1 км от порта Тэчхон города Порёна до острова Анмёндю уезда Тхэан-гун через остров Вонсандо. Самый протяженный отрезок от порта Тэчхон до острова Вонсандо соединяется подземным тоннелем, а далее до острова Анмёндю через надводный мост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1,8 км. Последний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ён. Осенью, к празднику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мост будет открыт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Подводный тоннель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в конце 2021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58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сле его завершения время, затрачиваемое на дорогу от Тэчхона до острова Анмёндю, сократится с полутора часов до чуть более 10 минут. Как ожидается,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 комфорт дорожной системы и привлечёт в регион турист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негативно влияют на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КНДР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НДР оказывают влияние на оказание ей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интервью KBS профессор Наги Шафик, который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 состоян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КНДР, проводившемся в мае Детским фондом ООН (ЮНИСЕФ).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допускают исключения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мощи Северу, но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санкции всё равно негативно сказываются на гуманита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НДР. Профессор отметил, что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ольницах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ет даже элементарных медикаментов. Он выразил несогласие с тем,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швейцарска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Ruongsu Pharma н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Основанная в июне 2002 года, она производит в КНДР обезболивающие, антибиотики и другие базовые лекарст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гуманита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али с компанией по поставкам лекарств в КНДР. Но с принятием в 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запрещающей делов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ом, механиз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еверянам медикаментов столкнул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Профессор также указал на ряд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в том числе нехватку чистой питьевой воды.

Восемь из десяти южнокорейцев согласны с повышением налогов в интерес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осемь из десяти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приемлемым полити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расширению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с помощью повышения налогов.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проведенно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еди 3.800 человек. Вышеуказанный ответ дали 75,7% респондентов. 22,6% да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й ответ.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озвучено мнение о чрезмерном расходовании налоговых поступлений, а также о том, что расширение политик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икак не скажется на их благосостоянии, а расшир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негатив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активности людей. Около 70% респондентов согласились с поддержк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а также с налоговыми льготами для людей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ов. Помимо этого,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направить больше средств на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типендий студентам, улучшение уровня жизни пожилого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на услуг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RKI)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эссе (лауреат премии 1-й степени) Ким Алиса, 31 год,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ИМ Алиса закончила первую гимназию им. А.С. Пушкина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Жила 9 лет в Корее. Училась на архитектора-дизайнер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Донгсо, (г. Пусан), на бизнес менеджер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Ёнсе, (г. Сеул), работала в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Дэрим в подразделении бизнес развития. Вернулась на Сахалин. Работала в архитектурно-проектной компани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нсал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и JMJ.

Хальмони

- 죽고 싶어! Я хочу умереть! – кричала моя бабушка на всю Корею.

- 할머니 ... Хальмони, бабуля...

- 하느님은 왜 날 안 데려가?! Почему Бог не забирает меня?!

- 아직 때가 안 된거죠. Может еще не время.

- 때가 된지 오래 됐어! 나는 준비 다 됐어! Время уже давно пришло! Я готова!

-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이렇게 정정하신데... Но, бабуля, вы полны жизни...

- 내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 힘 다 빠졌어. 다 끝났어. 눈도 안 보이고, 밥도 못 먹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내 말 못 알아들었어? Я?! Сколько мне еще нужно жить? Нет у меня сил больше. Я уже – все. Я и вижу плохо, и ем плохо, и даже еле говорю. Разве ты не слышишь?! - кричала она на весь пансионат, заряжая своей энергией все вокруг.

- 할머니, 집에 가야 하지 않겠어요? Хальмони, может вернетесь домой?

- 나 지금 집에 있잖아! Я – дома!

- 사할린 집 말이에요. Домой – на Сахалин.

- 미쳤어?! 내 집은 여기 한국이야. Ты что, с ума сошла?! Мой дом – здесь – в Корее.

- 여기서 어떻게 혼자 외롭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사세요? Вы же здесь совсем одна. Разве так можно жить?

- 나 살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죽으려고 왔지. 나는 내 고향에서 죽고 싶다. Я сюда не жить приехала, а умереть. Я хочу умереть на Родине.

Это был один из моих первых диалогов с бабулей. Он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говорила по-русски, а я заговорила по-корейски только после 18 лет.

Моя хальмони, моя бабуля Ким Чай Ко (조재금 в девичестве), родилась в Корее, в провинции Кенсангбукдо, недалеко от приморского города Пусан, в 1924 году. Только подум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100 лет назад. Она выросла в знатной семье, получила домаш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вышла замуж за красивого мужчину из хорошей семьи. Вместе с мужем, гонимая войной, она приехала в Карафуто 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в 1944. Вскоре война кончилась, границы закрыли, а мои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оказались на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к, в 20 лет она оста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оторванная от дома, но полная надежд однажды вернуться в родные края. Надеялась и ждала она 60 лет. Представляете, 60?! Целая жизнь прошла у нее на острове: она родила троих детей, воспитала внуков, работала изо дня в день на огороде и продавала помидоры на рынке. А в 2006 году свершилось ее долгожданное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благодаря японско-корейской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В 82 года, покинув свой дом с детьми, внуками и правнуками, она приехала в пансионат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в г. Инчхо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Чистое уютное здание, полное одиноких душ, оставивших свои семьи на Сахалине в ожидании смерти на Родине. Моя бабушка, еще полная жизни и энергии, прилетела в Корею по собственной воле. Прилетела обрести покой и умереть. Шли годы, но жизнь не покидала ее постаревшее тело. Расступок не мутнел, и даже ярое нетерпение уйти на покой говорило о том, как живо бурлит кровь в ее жилах.

Я несколько лет училась в Корее и у меня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навещать хальмони регулярно. В основном она встречала меня с недовольством: «또 왔어? 왜 왔노? 살아 있어. 가. Опять пришла? Зачем пришла? Я еще жива. Уходи». Я, конечно, не уходила. Она с неохотой принимала меня. Ругала за гостинцы, не позволяла обнимать и отказывалась смотреть фотографии родных с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долгого молчания она, прикрикивая, жаловалась мне: «죽

고 싶어! 하느님은 왜 날 안 데려가? Я хочу умереть! Почему Бог не забирает меня?»

Она выгоняла меня, махая руками. А если я не уходила, то уходила она. Пряталась в своей комнате, где лежало еще несколько бабулек, и делала вид, что меня уже нет рядом.

Бывало, хальмони встречала меня с радостью. В ее глазах я видела любовь и облегчение от встречи с родным человеком. Я обнимала ее крепко-крепко, а она смеялась от того, что я глажу ее по голове. Я была больше бабушки в два раза – выше и шире. В моих объятьях она казалась ласковой малюткой. Глубокие морщины рассказывали о тяжелой жизни, но блеск в глазах выдавал ее внутреннего ребенка. Бабуля водила меня за руку по всему пансионату, знакомила с другими старушками и хвасталась, что к ней приехала внучка издалека. Потом мы смотрели семейные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даже звонили кому-нибудь из родных по видеосвязи. Ее глаза наполнялись слезами. На прощание она просила приходить реже, чтобы ей не было так тяжело. Она провожала меня во дворе и долго смотрела вслед...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навестить бабушку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на лежала в больнице в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Меня к ней не пустили.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ее перевели обратно в пансионат, но это было только начало. Бабушка стала лежать в больнице все чаще. Она страдала. Дух не покидал ее тела, как бы сильно она этого не желала.

하나님은 왜 날 안 데려가? Почему Бог меня не забирает? – жалобно прошептала хальмони после реанимации. Маленькая, скукожившаяся, с серыми от слепоты глазами. Она не могла есть. Она не могла двигаться. Она еле-еле поворачивала голову. Злость и обида покинули ее взгляд. Бабушка казалась такой умиротворенной...

하나님은 왜 날 안 데려가... Почему Бог не забирает меня... – риторически повторяла она.

Ее увезли на носилках в палату, а я осталась стоять в пустом коридоре. Мои сдерживаемые рыдания раздавались эхом в этом необы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Я чувствовала парализующее бессилие от того, что не могла ей ничем помочь. Я чувствовала глубокое одиночество от того, что никто не мог помочь мне. За огромными стеклянными окнами светило солнце, дул ветер, качались деревья, шли люди, двигались машины. Я будто наблюдала жизнь на экране. Меня переполняла обида, что близкий мне человек может вот так умереть, а жизнь продолжается.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хальмони привезли в пансионат и сказали, что в таком возрасте операции уже делать бесполезно, остается лишь ждать «ест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Слышать это было невыносимо. Однако, хальмони прежней уже не была – она заявила: «Я хочу домой, на Сахалин».

Вскоре ее сын, мой самчон (дядя) Сенай, и старшая внучка Яна вернули хальмони в родной дом. Мы навещали ее. Мы все. Говорили, обнимались, плакали, смеялись всей семьей, и вскоре душа ее обрела покой. После 10 лет ожидания смерти на Родине, хальмони вернулась домой, когда ей было 92 года, попрощалась с близкими и покинула этот мир в окружении семьи. Мы проводили ее со всей любовью и теплотой...

Эта история моей семьи. Это история многих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колько боли и разочарований перетерпело поколение моей хальмони?.. Сколько сложностей 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ей это посеяло в поколении моих родителей?.. Сколько непонимания и потерянности это значит для моего поколения?.. Бесконечное множество. Однако на один вопрос мне удалось найти ответ.

Дом – это там, где семья, где любят, ждут и помнят. Так дай Бог каждому обрести свой д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ствовали работников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празднику, состоялос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собравшимся обрат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замечате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 Днем социального работника!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нужно любить людей.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ачество, присущее вашей профессии,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умов.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лучших работников отрасли.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за трудовые достижения получили 14 сотрудников.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вручила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призерам и победителя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звание «Лучший работник учрежд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обслуживания». Этот конкурс,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профессии работ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оводи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 2011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2 человек из 7 учреждений в 7 конкурсных номинация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еестре поставщиков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находится 36 организаций, из которых 8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 отрасл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рудится более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помни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ются передовые практики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Опы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с детьми перенимают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ведены новые льгот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работе,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бедных островитян. В част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ринят ряд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с 9,7 до 6,7 процента, при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м показателе более 13 процентов. К концу 2019 года работа по да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позволит снизить показатель бедн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до 4,6 процент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Стартовавш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выявлени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оступков, совершенных жителями. Он проводи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генеральны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партнером – ИА «Sakh.com».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о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Главная идея конкурса – дать повод для гордости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за земляков, совершивших неординарные поступки. Например, это могут быть подвиги по долгу службы, помощь в спасении людей или животных, решение об усыновлении детей, волонтер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Жители также могут рассказать о многолетних или приемных семьях, о пенсионерах, ведущих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о школьниках и студентах, реализующих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области, о сахалинцах, которые, став успешными и узнаваемыми, прославили область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достижением, необычным поступком.

Всего заявлено 6 номинаций: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Доброволец»,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Выдающийся родитель», «Юный гражданин»,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На первом - с 30 мая по 21 июня -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конкурсантов по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gordost_2019@mail.ru. Далее комиссия, состоящая из экспертов-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проведет отбор кандидатов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них состоится на сайте [Sakh.com](https://sakh.com/) (<https://sakh.com/>) с 1 по 22 июля.

В 2018 году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приняли более 70 кандидат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истори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живут рядом и которыми можно и нужно гордиться.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ериода голосования о героях проекта рассказывали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а истории судеб и героических поступков в 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оценило 10 638 человек.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ось более 40 мест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вылова лосос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о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торый разрешает любительский лов лососевы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места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тдыха и рыбалки. Спустя 10 дней после опубликования документа новые правила вступят в силу.

Ранее участков, где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ловить лососевых на удочку без приобретения путевок, не было совсем.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зон, где велась рыбалка по путевкам.

С инициативой разрешить любительский выл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ыступи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дею поддерж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лья Шестаков.

– Как известно, вопрос о свободном вылове горбуши поднимался неоднократно, но принципиа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 не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только после встреч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Ильи Шестакова. Сейчас эта тема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а. Наконец-т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или законное и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аво пользования лососевыми богатствами прибрежных акваторий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Горничных.

Промысел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нется в июле,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к началу предстоящей путин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иметь право вылова до трех экземпляров рыбы, или до пяти килограммов на человека в сутки. Всего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44 места.

Свободный вылов горбуши предложе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излюбленных у рыбаков участках: пролив Красноармейский и морское побережье на удалении от устья реки Мере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а также в районе поселка Музьма в Ох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и других местах.

Напомним,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рыба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обыли более 126 тысяч тонн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Объем вылова горбуши – 85,5 тысяч тонн – стал максимальным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Кеты добыто около 40 тысяч тонн, что превосходит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ыдущей путины в полтора раза.

При этом,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рыбаки-любители в 2018 году выловили 126 тонн рыбы – то есть всего 0,1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добытых биоресурсов. В 2015 году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выдано 45 тысяч бесплатных путевок для лова горбуши. Максимальный суммарный вылов тогда был оценен на уровне 200 тонн, или 0,4 процента добытой горбуши.

Эти цифр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не может нанести ущерба природным запасам.

На Сахалине построят гостиницу сети Hilton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но сегодн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оговорились резидент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ОО «Бриллиант»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рендовый оператор Hilton.

-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деляет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региона. Основными приоритетами данной отрасли он считает создание на остров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ее доступ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услуг. Поэтому подписание этого договора для нас является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ем,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многие задачи,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ивлечь на Сахалин еще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 счет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х воздух». Инвестор - ООО «Бриллиант», резидент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бщий объем выделенных средств свыше 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Гостиница будет самой большой на Сахалине. Ее площадь составит 23,6 тысячи метров квадратных. Десятиэтажное здание включит в себя 209 номеров, часть из которых будет элит-класса. В нем также разместятся ресторан на 30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и два зала-трансформер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онференций, выставок и презентаций.

- Сеть отелей Hilton насчитывает 100 летний опыт работы в бизнесе и имеет более 5 тысяч гостиниц по всему миру. Я уверен, что приход нашего бренда в островную область, поднимет уровень конкуренции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на островном рынке. А учиты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ашей компании мы готовы продвигать новый объект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по развитию в компании Алексей Шаталов.

Инвесторы планируют, что объект станет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по профилю гостиничного сервиса и туризма. Они с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практику у действующего мирового лидера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теля планируют начать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а завершить в 2022 году.

Почти 1800 пенсионеров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Свои услуг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 возрасте «65+»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длагают 29 спортивных и 30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овая со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в области уже третий месяц и с каждым днем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По данны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получили 1797 человек.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к концу года в проект будут включены 5 тысяч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Однако, по заявкам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ланы увеличены, и сейчас речь идет уже о 13 тысячах участников.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был запуще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 апреля. Тогда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могли посетить 7 культурных и 9 спорт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мае к проекту подключились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Теперь жители могут на свой выбор посетить 29 спортивных и 30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лся и перечень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ряду с групповыми занятиям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енера, посещением тренажерного зала и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ой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услуги бассейна, занятия волейболом и другие популярные виды спорта.

Например, в Смирных пожилые люди ежедневно выходят на массовую зарядку на местном стадионе. Девиз мероприятия – «Здоровье в порядке – спасибо зарядке». Занятия стартуют с 6.30 утра и длятся 1 час. Кроме того, в поселке открыта группа здоровья, в которой занимаются 18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40 до 73 лет. Для них проводят уроки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е, лыжной подготовке. Активисты делают гимнастику и осваивают игровые виды спорта.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на районном стадионе, лыжной базе и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Арена».

– Главное в нашем возрасте – это здоровье. Благодаря «Сахалинскому долголетию» все пенсионеры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могут ходить на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есплатно. С нами занимается тренер, он следит, чтобы мы не перетруждались, что тоже очень важно. Раньше мне особо нечем было заняться, а теперь на всю неделю составлен распорядок,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участница проекта Галина Орлова.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ме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 паспортом, СНИЛС и справкой об отсутствии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для тех, кто хочет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ланомерно в области решается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задача –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долговременного ухода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и инвалидами. Идея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ся за счет привлечения патронажной службы и сиделок, а такж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института приемной семьи для пожилых и других стационарозамеща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Сейчас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вопросы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возмездной опеки над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и недееспособ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и созданию мобильных бригад, которые в том числ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доставкой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Более 5 тысяч звонков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ступило на линию «1-300»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1-300» работа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олее двух месяцев. Новая услуга помогает выявлять и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островной медицины.

По вопросам, котор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поднимают регулярно, уже принимаются кардинальные решения.

Специалисты, работающие с обращениями граждан, стараются оперативно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по новым сигналам и отслеживают, как оказывается помощь сахалинцам, звонившим на линию ранее. К примеру, ещё в апреле на линию позвони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а жаловалась на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У меня проблема с ногой, история длится уже около года. Упала дома, появились боли, сначала обратилась в травмпункт, потом сделали операцию, но особого улучшения не наблюдалось. Вот и решила обратиться на «1-300».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и, предложили пройти лечение в горбольнице. Сначала лежала в стационаре, теперь перевели на амбулаторный режим. Мне стало намного легче. Хочется поблагодарить коллектив отделения, очень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ятся к пациентам,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льга Огняник. Операторы горячей линии регулярно фиксируют истории, когда пациентам на каком-то этапе не уделяют достаточного внимания, полностью не объясняют порядок действий по лечению или реабилитации.

- Врач должен слышать пациента и общаться с ним вежливо. Порой равнодушие одного доктора или медсестры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негативного мнения о работе отделения или целого учреждения. Нам надо искоренять такие случаи, – подчеркну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ведомстве активно занимаются ещё одной ключевой задачей -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 с кадровым дефицитом в больницах и поликлиниках.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ь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не менее 150 врачей. Сейчас ведё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медвузов, им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предпочтениях,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езжающих работать в область. С этого года удвоены подъемные, теперь они составляют от 1,6 до 2,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выбранного для работы.

Предпринимаются и другие шаги по увелич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в которых её оказывают. Так, в 2019-ом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2,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закупку мед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сравн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около 2 миллиард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시상식 예년에 비해 글짓기의 수준 향상

(2면의 계속)

의미있는 표현과 간략한 사실로 전체를 말해주는 표현 등, 관용어 사용도 적절했다.

작품이 많은 만큼 심사 기준도 엄격하게 공모 주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맞춤법이 틀렸는가? 화려한 문체인가? 하는 것은 소소한 문제이다.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은 '작자가 의도하는 주제가 일관 되는가?', '주제에 따른 소재가 적절히 잘 표현되어 있는가?', '작자가 진심을 담아 쓰려고 애를 썼는가?'를 우선적으로 보았다.

학교학생들을 포함해 한국어 글짓기 부문에서는 11명이 수상했다.

한국어 글짓기 부문

청소년부는 1등이 될 만한 작품이 없었다.

2등 - <한국이 좋아> (김현아, 15세,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학생)

3등 - <한국여행> (박 아르쎌, 13세, 하바롭스크 폴리텍니크 리체이)

장려상 - <서로의 도움> (키릴키나 엘리자베타, 유즈노사할린스크 동



양김나지아 9학년생)

시상은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이 했으며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김현아 학생에게 교육원 측에서 경희대학교 여름 한국어캠프(2주간) 참가권을 수여했다.

성인부:

1등 - <한국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안복자, 62세, 하바롭스크, 연금자)

2등 - <사람마다 가슴 속에 섬세

한 자기 민족의 초상화가 들어있다> (이 잔나, 50세, 하바롭스크, 교수),

<한국의 대학생살> (쿠즈네초와 마리아, 21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철도대학 졸업생)

3등 - <우리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임복희, 68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연금자)

<어머니로서의 삶> (박정순, 68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의사)

<내 고향> (정영애, 한국 안산 영주 귀국자)

장려상 - <한국의로의 첫 여행> (코슬로바 예카테리나, 태평양)

최우수상으로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하바롭스크-인천-사할린 항공권 구입 상금을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이날 시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어진 공연에는 <에트노스> 예술학교 학생들의 단소 연주와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팀의 난타 공연, 최 울라 씨의 노래가 한층 분위기를 돋운 가운데 시상식이 마무리 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박혜신, 사진/이예식)

[우리말로 깨닫다]

글쓰기의 위로

글쓰기를 시험으로 내면 쓰기가 고통이 됩니다. 저는 종종 글쓰기를 시험에서 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쓰고 싶은 글을 쓰게 하여야 쓰기교육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쓰기는 마음을 보이는 귀한 장면입니다. 평가를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고백이 쓰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글을 쓰면서 저를 위로합니다. 글쓰기는 위로입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새벽에 잠을 못 이룰 때나 늦게까지 깨어 있을 경우에 가라앉은 마음에 독백처럼 말을 건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그럴 때 글쓰기는 명상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도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해매고 길을 잃을 때 글을 쓴곤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 고통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써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해 보지 않은 일이 쉬울 리 없습니다. 여러 번 해야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자꾸 써 봐야 합니다. 그런데 쓰기를 어려워하는데 자꾸 글을 쓰게는 될까요?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를 권장합니다. 간단한 메모를 종이에 남기든 휴대폰에 남기든 관계없습니다. 생각나는 구절을 '날 것'으로 남겨 두는 겁니다. 꾸미지 않은 내 생각이 훌륭한 글감이 됩니다. 새벽시간이나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말입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메일이나 문자,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은 글이 너무나도 훌륭한 겁니다. 자신의 글 솜씨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종종은 글이 아니라 말을 할 때도 멋진 비유나 깊은 생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대로 글로 옮기지만 해도 훌륭한 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이야기를 메모하지 않아서 후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없다면 메모를 해야 합니다. 생각의 흔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책임기는 그대로 글쓰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쓰기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책임기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책을 읽을 때 좋은 글귀를 기억하고 따라 써 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좋았던 글귀는 다시 책에다 메모를 합니다.

자꾸 따라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 연습이 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글감이 되고 글 힘이 됩니다. 책을 쓴 내 생각의 메모는 그대로 내가 쓰는 글의 중요한 한 줄이 됩니다. 글은 이 한 줄 때문에 쓰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담긴 글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 위로가 됩니다. 나만의 책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글쓰기는 내 기억의 저장이기도 하지만,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위로하는 순간임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다면 글을 써 보세요. 외롭다면 글을 써 보세요. 아프다면, 서럽다면 내 이야기를 글에 담아 보세요. 생각보다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가여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글쓰기는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주 미술박물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

(1면의 계속)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현재 한글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하하고 전부터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은 이날 전시회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특히 장기간 신문과 함께한 애독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문 창간 80주년을 향해 걸

어나가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전시회 큐레이터인 하이 욱자 미술관 수석 전문가는 <새고려신문 70주년: 우리들에 대하여> 전시회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문과 비슷하게 칼럼 코너 식으로 전시를 나누어 보았다고 설명했다. 편집장의 칼럼 코너 아래는 한민족지의 편집장(주필, 사장) 6대까지 소개되었고 별도로 사진기자들(김화찬, 유리 풀루힌, 이예식)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전시에는 신문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신문, 책, 물품, 서류, 독자의 편지

와 통신원들의 기사, 문예콩쿠르의 자료 등등이 제공되었고 사할린주 역사고문서보관소의 자료가 전시되었다.

첫 소감을 나눈 관객들은 전시가 잘 조성되었다며 재미있다고들 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열리며 이후 올해 내 네벨스크, 흠스크와 마카로브시에서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개막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결과 발표 및 시상식과 공연으로 이어졌다. (관련 기사 2면)

(본사 기자)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Курс полностью бесплатный. На время занят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оставят пленочные фотоаппараты,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все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Мероприяти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Партнером выступает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котора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омещени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ой части курса.

Первые два лекционных занятия пройдут 17 и 18 июня в 18.00 в СахОУНБ по адресу: ул. Хабаровская, 78.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8-914-757-79-94 (Александ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 매주 금요일 야외에서 영화 상영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 무료 야외영화관이 열렸다. 매주 금요일 소형 스포츠자동차 경기장 근처에서 대형 화면으로 사람들이 애호하는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목록에는 소련 영화, 판타지, 멜로드라마와 코미디이다. 주최 측이 전한 바에 따르면 6월 7일에는 첫 영화로 소련시대의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영화 <젍차타(처녀)>를 상영했다.

영화는 일반인들이 퇴근 후 바로 18시 30분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원 측은 날씨가 나쁜 경우도 고려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우리가 유리 건물로 옮겨갈 겁니다. 거기에 차, 커피, 담요를 가져가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공원 홍보실 직원 왈레리아 탈니코와가 말했다.

영화 상영 편성표는 날씨와 관계 없이 전 여름 기간 동안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금요일은 관객들을 <모스크바-카시오페야> 과학 판타지 영화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주에는 소련 로멘틱 영화 <당신은 꿈도 꾸지 못했다>를 볼 수 있다. 영화 상영 편성표는 공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показывают кино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бесплатный кинотеатр.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у картодрома будут устраивать сеансы любимых фильмов. В репертуаре — советское кино, фантастика, мелодрамы и комедии.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7 июня в качестве премьеры сезона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брали фильм о трудовой советской молодежи — «Девчата».

Кино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сразу после работы, в 18:30. Еще в парке подстраховались на случай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погоды.

— В непогоду мы переезжаем в стеклянный шатер. Туда можно взять с собой чай, кофе, плед и наслаждаться просмотром кинолент, — рассказала специалист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Валерия Тальникова.

Сеансы распланированы на все ле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годы.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ницу гостей ожидает научно-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фильм «Москва-Кассиопея», а в следующую — советская романтическая лента «Вам и не снилось». Расписание показов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парк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И СЛАВЕН БУДУ Я...»

6 июня к 22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ушкина стихотворения русского поэ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читали студенты четырех стран: Росс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итая и Японии.

Сегодня наследие А.С. Пушкина известно во всем мире. Именно за днем рождения Пушкина –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а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 закреплена и Ден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отмеч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за рубежом: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т день утверждены Организацией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в 2010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инимающем каждый год на стажировку или обучение студентов из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часто публично читаются произведения творивших в России авторов как на русском, так и на своих родных языках. Однако в Ден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ратиться к стихотворениям Пушкина и прочитать их на том языке,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 великий поэт.

Студентк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Ли Сумин свой выбор остановила на стихотворении «Если жизнь тебя обманет», полагая, что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самое известное в Корее. «Зимний» отрывок из романа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прочитала и Го Суён, впервые узнавшая о Пушкине в восемнадцати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О любви корейцев к Пушкину,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евушки, напоминая открытый в 2013 году памятник русскому поэту в Сеуле.

Для И Бок Сун и Кан Марии, изучающих отечественную филологию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рус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родным, поэтому их артистическое чтение наизусть отличалось легкостью и быстротой. С особыми интонациями прочитала студент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ппоро Хаясака Томоми стихотворение Пушкина «Ты и Вы». А более десяти выпуск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Харбинск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представили самые известные пушкинские строки: «Храни меня, мой талисман...» (Хуан Чжиминь), «Всё кончено, меж нами связи нет...» (Чэн Фэйюй), «Зимняя дорога» (Ван Ифэй), «Мой голос для тебя» (Лю Цзясин) и другие.

Уже в конце июня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ернутся в свои родные места не только с новым багажом знаний, но и с умением чувствовать ритмику русской поэзии, читать наизусть стихотворения Пушкин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러시아산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 등 반입 제한 안내

잠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물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인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
- 1회(500만원) → 2회(750만원) → 3회(1,0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이외 제품 및 기타 국가
- 1회(100만원) → 2회(300만원) → 3회(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의 반입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2019.4.18.) 연해주 나호트카시 “레스나야 오토라다” (블라디보스톡 기준 북쪽 120km소계)사냥터에서도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여행객, 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 교민들께서는

동 지역과 가축질병 발생지역으로 여행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축산농장 방문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 (2019.1) : 연해주 미하일로프스키(블라디보스톡 북쪽 120km), 스파스크(북동쪽 23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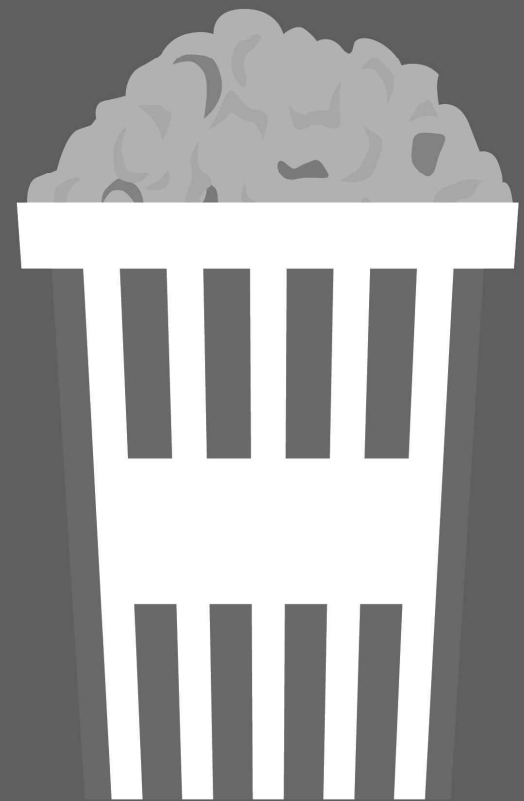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